

겨울철 AI 예방을 위한 생석회 도포 철저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- ◆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국내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
 - 가금농장 내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일제 도포하고 겨울철 지속 유지하여 차단방역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.
 - * 생석회: 1차 열반응(약 200℃)에 의한 병원체 사멸, 이후 강알칼리(pH11~12) 작용으로 소독 효과가 있으며, 쥐 등 야생동물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음

참고 가축전염병 방역용 생석회 사용요령

- ◆ 생석회는 1차적으로 열반응(약 200℃)에 의한 병원체 사멸, 이후 강알칼리(pH11~12) 작용으로 소독효과가 있고, 쥐 등 야생동물 차단효과도 있음



◎ 살포장소

- (소독) 농장 진입로와 축사 주변의 바닥 또는 토양
- (구사+소독) 농장 울타리 밖, 축사 외부(둘레)

◎ 살포기준

- 살포량 : 1포(20kg) 당 약 9~10㎡ (두께는 지면으로부터 약 2cm)
* 반드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
- 살포폭 : 약 2~3m (농장 진입로는 최소 차량바퀴 1회전 이상의 폭)

◎ 살포방법

- 평바닥에 소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생석회 충분히 살포
- 최소 1주일 간격으로 반복 살포(생석회가 굳어진 경우 1주일 전이라도 걷어내고 재살포, 비나 눈이 온 경우 다시 살포)
* 굳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뿌리면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바닥을 드러내게 긁어 낸 다음 소량의 물을 뿌린 후 다시 살포
- 생석회는 쥐 등 야생동물에 기피효과가 있으므로 위험지역인 경우 농장 울타리 둘레로 살포 권장(폭 50cm 및 두께 약 2cm)

◎ 주의사항

- 반드시 과립형 생석회를 사용할 것
- 바람이 불 때는 눈·피부에 접촉되어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
- 다량을 뿌릴 때는 눈에 들어가지 않게 방독면과 밀폐안경 착용
- 생석회는 알칼리성이므로 생석회 위에 산성소독약을 뿌리지 말 것



참고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

- ① 불특성 다수인의 출입 차단 관리 철저(차단 시설 설치)
- ② 농장 출입 사람·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 작성, 소독 철저
 - * 농가 진입로에 약 2~3m 이상 생석회 도포(차량바퀴가 1회 이상 접촉)
- ③ 농장과 축사 출입 전 소독조 운영 및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
- ④ 농장 내부 사용 차량·장비의 내외부 및 작업동선 소독 철저
 - * 농장 내부 사용차량 및 장비(스키로더, 왕겨살포기) 사용전 세척·소독(흙 등 환경시료 오염)
 - * 장비(스키로더, 왕겨살포기) 사용 전에 작업동선에 대한 철새분변 제거 및 소독 철저
- ⑤ 농장 작업 전 마당 및 통로 등에 대해 청소 및 소독 철저
 - * 사료 급여 등 작업 전에 반드시 소독조치 또는 축사 진입 전·후 반드시 장화 소독 철저
- ⑥ 철새도래 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(논밭) 출입 자제 및 출입 시 방역조치(세척 및 소독) 철저
- ⑦ 야생동물(철새·털새·고양이·설치류) 출입차단을 위한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*(벨트) 축사·왕겨창고·퇴비사 그물망 설치 및 관리 철저
 - *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약 50cm 폭 이상으로 둘러 도포
- ⑧ 사료잔존물, 철새분변 제거 및 등 청소·소독 철저
 - *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농장 마당 및 통로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, 소독액 살포 및 청소
- ⑨ 폐사체 발생시 밀폐된 용기 등에 보관 후 허가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

